

(특집)

남북한 체육·문화 교류협력의 문제점 진단과 활성화 과제

이수석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머리말

2.13 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졌다. 남북간에도 경의선·동해선 철도 운행 시험과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당국자 회담 등이 개최되어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청소년축구 대표팀 국내 전지 훈련 등 남북한 체육 문화 교류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체육·문화 교류는 정치·경제 교류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남북한 주민들 간에 파급 효과가 큰 교류 사업이다. 또한 정치·군사 교류와 달리 해결해야 할 큰 과제들이 별로 없어, 행사를 진행하기에 부담이 없는 교류 행사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남북한 양측은 남북 관계에서 현안들이 잘 풀리지 않거나 소강국면을 타개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할 때, 체육 문화 교류를 활용하곤 했다. 어떻게 보면 남북 체육 문화 교류는 북한이 대남 관계를 진전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 체육 문화 교류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동안의 체육 문화 교류에서의 성과와 함께 미비점들을 파악한 후, 향후 남북한 체육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6.15 이후 달라진 체육·문화 교류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 남북한 체육 문화 교류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북한의 의도 때문에 남북한 체육 교류의 확대와 활성화에 장애가 많았다. 남북 체육 교류는 정치적인 영향을 탈피하지 못하여 국가대항전의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을 비롯한 문화 예술 교류도 북한 체제의 선전에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국제경기에 참여할 형편이 곤란함에 따라 제 3국에서의 남북한 체육 행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때에 이르러 현대그룹에 의해 민간 최초로 체육 교류가 재개되면서 체육 문화 교류는 확대되기 시작했다. 즉, 1998년 현대와 북한간에 ‘실내 종합체육관 건설 및 체육·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고, 1999년 9월 현대가 정

부의 대북 협력 사업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은 큰 역할을 했다. 이후 현대와 북한 농구팀간의 상호 방문 친선 농구대회 개최 및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가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체육 분야 교류의 성격은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남북 간 국가대항전의 성격에서 화해 협력의 수단 및 통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대항전의 성격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대회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로 나타났다. 물론 1991년 탁구와 청소년 축구에서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해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한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 소강 상태였다.

6.15 이후인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 개·폐회식때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앞장 세우고 동시 입장하면서 정치적 대결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작년의 경우 수해 피해와 북핵실험으로 8.15 남북공동행사와 남한의 아리랑축전 참가가 취소되는 등 정체된 시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체육 문화 교류는 활발했다.

6.15 이후 체육 문화 교류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다양한 분야로의 교류 확산을 들 수 있다. 체육의 경우 축구, 권투, 육상, 마라톤, 골프 등 다양한 종목의 교류로 확산되었다. 특히 2004년 10월 중국 심양에서 시작된 남북한 권투 교류 협력은 2005년에 이르러 매 분기마다 개최될 정도로 정례화가 되었고, 2006년에는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한국 여자프로 골프대회가 2005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남북공동 마라톤 대회도 개최되었다. 그리고 남북 태권도 통합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문화 예술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화, 전시, 애니메이션, 공연, 음반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진행되었다. 특히 2006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윤이상 음악회 행사는 남북 합동 음악회로서 그 의미가 컸다. 그리고 작년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한의 작가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6.15 민족문화인협회’를 결성하였다.

둘째, 국제 체육대회에 북한 참여 및 남북한 동시 입장의 전례가 마련되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한 공동 입장,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 2004년 28회 아테네 올림픽 개·폐막식 등 거의 모든 국제대회에서 남북한이 공동 입장하는 것은 관례가 되었다. 작년에도 2월의 토리노 동계 올림픽과 12월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의 개·폐회식에서 공동 입장이 이루어졌다.

셋째, 정부당국의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교류와 남북주민간의 공동 행사 증가를 들 수 있다. 6.15 공동행사와 8.15 민족대축전 행사가 정례화 되었고, 이 행사의 일환으로 체육 행사와 각종 문화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이것은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체육 문화 교류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나타낸다.

체육·문화 교류의 문제점

정치적 측면

체육 문화 교류는 남북한의 정치적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작년의 8.15 공동행사와 남측의 아리랑축전 참가가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체육 문화 교류를 체제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북한 측 의도 때문이다. 한국은 체육 문화 교류를 화해 협력의 수단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북한은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간주한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의 행사들을 보더라도 북한은 통일 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교류 행사, 예컨대 남북 노동자들간의 행사들을 적극 추진하였다. 아마 앞으로도 북한은 남한 내의 제 사회단체 및 청년학생, 노동자 단체들이 참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려 할 것이다.

체육 문화 교류의 내용에서도 장기적인 프로그램 대신 단기적이고 일회용 행사 위주로 진행된 적이 많았다. 게다가 남한내 민간단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된 경우라든가, 북한측에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 등이 발행하기도 했다. 북한 사회문화단체와 예술단의 방남, 남한 사회단체의 방북 등에는 일정한 금액이 지불되는 등 남한이 경제적 비용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들이 많아 논란을 발생시킨 것이다. 향후에도 이런 점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실리를 얻지 못하는 남한과의 체육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목살했고, 남한의 많은 단체들은 이런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북한은 남한 내부의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통일전선 기반 확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 혹은 외화 획득의 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체육 문화 교류에 접근해 온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법·제도 측면

무엇보다 남북 체육 교류에 관련한 인적 교류 합의서 미비를 들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지만 북한의 무성의로 후속 조치가 없어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인적 교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만일 교류가 중단되거나 결렬되더라도 북한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한 체육 분야 지원에 대한 법적 절차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의 경우, 매건 당 신청사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결정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은 남한내 특정단체 주관하에 북한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

이 이루어질 경우 특혜 논란도 발생한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단편적, 일시적 지원에 그칠 경우가 많다. 남북 체육 교류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교류 기금 확보와 체계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국제 스포츠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별로 없다. 북한은 경제적 이유로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비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칭 펀드식의 체육교류기금 설치나 한국이 보증하고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 정서 측면

남북한간의 체육 문화 교류가 비정치적 교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 북한 교류를 민족공조를 선전하려는 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남한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체육 문화 교류가 상호 신뢰와 민족 동질성 회복보다는 북한의 선전장이 된다면, 스포츠와 문화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북한에 대한 남한 내의 비판이 거세질 것이다.

또한 북한 체육 시설 및 체육 인프라에 대한 지원시 일종의 ‘대북 퍼주기’로 비난하는 남한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남한의 우수 체육인들에 대한 지원도 예산 문제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 체육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 남한내에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다. 만약 북한 스포츠에 대한 지원의 결과 북한의 ‘체육영웅’이 탄생된다면 북한 체제 선전에 남한이 비용을 대준 결과라는 비난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국민 정서상 북한 체육 분야나 남북 체육 교류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은 곤란한 점이 있다.

체육·문화 교류 활성화 과제

남북 체육 문화 교류의 목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그래서 남북 체육 교류를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사회 문화 분야의 전반적 교류와 함께 남북 관계 활성화를 유도한다면, 남북한 상호 신뢰 구축과 남북 주민들간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런 목표하에 체육 문화 교류의 추진 방향은 교류에 대해 북한이 주저하거나 의심을 갖지 않도록 민간 차원에서 비정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 민간 체육계나 시민 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정치적 책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 체육 문화 교류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 과제

남북한 체육 교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남북협력기금에 따른 지원은 상호 방문 경기, 단일팀 구성 및 국제 대회 참가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전문 선수와 지도자 초청, 운동용구 교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은 교류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일부를 남북 체육 교류 협력 사업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체육 관련 정보 자료 및 훈련 방법, 경기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북한의 우수한 선수들의 한·중·일 프로스포츠계 취업을 적극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북한의 선수들이 국제 프로 대회에 진출하여 외화 획득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국제적 위상도 올라갈 것이므로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에 축구 경평전(京平戰)과 같은 친선경기 및 시범경기 교환을 적극 추진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발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편 민간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남북한 체육 교류를 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등을 발굴해서 이들 체육 관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으로는 과거 동서독처럼 ‘남북체육교류 협정서’를 체결하여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체육 교류가 지속되도록 한다. 그래서 남북한간에 체육 교류 전담 상설기구를 민간 조직으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남북 체육 교류 협력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벤트성 남북 체육 교류보다는 과거 독일의 ‘도시간 결연사업’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정례화된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각 지역별로 일부 종목에 한해 북한과 체육 교류를 제의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도 맞고 북한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 교류가 국가 수준의 교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교류로 된다면, 남북한 국가대항전과 같은 체제 경쟁과 선전의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참가하는 남북 지방자치 단체들을 통한 남북 스포츠 교류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국체전을 해외동포들을 포함한 민족체전, 혹은 한민족 올림픽으로 전환하여 매년 번갈아가면서 남북한의 각 도시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북한에 제안한다. 그리고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 논의되었던 남한·중국·일본의 프로 축구 대회 결성을 좀 더 구체화시켜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체육 문화 교류를 위해 국제기금의 조성 및 사용을 유도하고, 국제기구들이 남북 체

육 문화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될 때 남북한 체육 문화 교류 사업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정례화된 사업으로 변모할 것이다.